

# 정부, 공공기관 이전계획 지연... 지자체 경쟁 과열만

광주 35개·전남 41개 유치 목표 3~4년전 목표로 재수정 불가피 정부지침 없어 상생논의도 못해 정주여건 등 인센티브 마련 골몰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지만 구체적인 발표 시기 등에 대한 움직임은 없어 유치전에 뛰어들어 지자체들만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자체간 경쟁이 과열될 조짐까지 보이면서 정부의 명확한 이전 계획 제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광주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9년 35개 공공기관 유치, 전남도는 이듬해인 2020년 41개 공공기관 유치를 각각 목표로 설정하고 물밑에서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상당수 유치기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확정된 안인 데다 현재 일부기관은 공공기관에서 제외됐거나 지자체로의 이전이 가시화되는 등 명단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양 시·도는 당초 목표로 세운 유치 기관 대상에 대한 수정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명단 확정에 늦어지면서 유치대상 선정을 못하는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가 4년 전 유치 의사를 밝힌 35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공공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

관 이전과 관련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지는 시점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전남은 지난 2005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공동으로 합작한 성과가 있는 만큼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전 대상 기관을 설정해 줘야 상생프로세스도 가동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이날 "정부가 아직 방침을 안 내놓은 상황이어서 대응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어떤 공공기관을 어느 권역으로 이전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이 나와야 한다. 그런 구체성이 나오면 광주시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광주와 전남이 민선 7기 때부터 요청했던 모든 사안들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멈춘

상황이다"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최근 당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 관련법 개정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는 이전 대상 기관들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상 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 대상의 인센티브보다 정주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에 집

중하고 있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맘 놓고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립의과대학 유치로 의료 인프라도 확충할 것이고 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라도 교육 여건을 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공공기관의 유치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항지 기자

## '공공기관 2차 이전 예고...'

1면서 계속 전북 역시 농협 본사 유치를 공식화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도 '전북혁신도시 활성화 대토론회'에서 농협 본사의 전북혁신도시 이전 타당성을 제기한 바 있다.

수협이 경우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 이전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전남도는 나머지 공공기관 선정에 대한 절차도 본격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신해양·문화관광·환경수도 전남'에 걸맞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한국항공공사, 한국환경공단, 지역난방공사, 한국어촌항공공단, 대한체육회 등의 공

공기관 유치를 공식화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이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먼저 듣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이제 (지자체가) 전략적으로 움직일 때가 됐다. 전남도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테스트포스팀을 운영해왔고 선제적 국회토론회도 여러 차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장을 직접 만나 건의도 하고 공공기관별 유치 전략도 마련했다"며 "아직 정부가 방침을 내놓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광주시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의장협의회 "농·수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 건의

### 이상만 의장, 관련법 개정 촉구

전남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빛가람(나주)혁신도시 시즌2' 초석을 놓을 농·수협 중앙회 본점 전남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의장협의회는 15일 장성군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제278회 전남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농·수협 중앙회 본점 전남이전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과 농어업의 공익

적 가치 보존을 위해 건의문을 채택하고 농협과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전남도에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둔 과거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이제 혁신도시 시즌2로 더 큰 완성과 성장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

앙회의 주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도 두도록 한 관련법을 전남 이전이 가능하도록 신정훈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농어업 진흥 기본 원리에 입각해 전국 최대의 농·어업인 전남에 주요 사무소를 이전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의장협의회는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농가에 감지 등 가공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한 한국전력공사의 비현실적인 위약금 부과를 규탄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